

14. 생명의 유업

2012. 4. 1.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중에 평안 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기업 무를 자에 대한 사실 중에서 생명 기업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배려를 살펴보고 합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마1:3~6]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 목사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벌써 녁 달째네요.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업 무를 자에 대한 말씀이 구주의 하실 사업을 표상하는 예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자들의 이름이 있는 곳을 본문으로 봉독했습니다. 그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오른 것이 특별히 어떤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까?

답: 예,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이 여자들은 도덕적 안목으로 보면 다 좀 기념할만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왜 하필 이 허물 많은 여자 이름을 예수님 족보에 올린 일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보지요. 주로 모계를 무시하는 유대인의 족보 관습상 다말을 포함하여 이 족보에 등장한 네 여자의 이름(다말, 라합, 룯, 밧세바)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다섯 여자이지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까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낳은 여자이니까 예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족보를 기록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 이름들이 의미하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이들 중 밧세바를 제외한 세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메시아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모든 족속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임을 보여 준다. (2) 룯을 제외한 나머지 여인들이 불륜을 저지른 수치스러운 죄인들이라는 사실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21절)이신 예수께서 죄는 없으시되 '죄 있는 육신의 모양'(롬8:3)을 취하여 자신을 낮추신 겸손하신 분(빌 2:5-8)이심을 분명히 드러낸다. 또한 룯은 비록 불륜을 행한 여자는 아니지만 그 조상이 근친상간에서 시작된 모압 여인(룯3:1-4:12)이었다는 사실에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의 광대무변하심을 엿볼 수 있다. 사실 모세는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했거든요.(신22:3) 그런데 그런 모압 여자가 구주의 족보에 버젓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3) 이 네 여자는 모든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으며, 이는 마리아의 예수 잉태 또한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섭리(눅1:29)에 기인된 것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는 등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핵심적인 사실을 외면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 네 여자나 예수의 모친 마리아나 동일한 의미로 족보에 이름을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동일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순결한 동정녀 마리아와 죄 많은 여자들, 이방 여자들이 동일한 의미가 된다는 말이지요? 좀 의아한데요?

답: 목사님, 저는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업 무르는 일에는 네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3. 예, 토지 기업뿐만 아니라, 벌금을 대신 받는다. 대신 복수를 한다. 자녀를 이어준다. 이렇게 네 가지 사실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답: 그런데 그 중에 자녀의 대를 이어주는 것은 생명 기업을 무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와 기업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이 신통치 않는 네 여자는 다 자녀 기업을 무르는 일에 관여한 사람들입니다. 정당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로 그 일에 관여했다는 말입니다. 우선 맨 먼저 이름이 나온 다말을 보면 그는 유다의 며느리이지요. 그런데 그의 남편 엘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엘은 만아들이지요. 다말은 반드시 만아들 엘에게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으니 그에게서 대를 이을 생명의 씨를 얻을 수 없지요.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사취수의 원칙을 수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다말에게서 나는 아들은 자기의 아들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씨를 밖에 버립니다.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생명 기업 물어줄 책임을 거절하는 것이지요. 그런 일로 오난이 죽었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이 죽자 자식들을 다 잃을까 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에게 형사취수하는 일을 시키지 않고 며느리 다말을 집에서 내어보내지요. 그러나 당시 사회제도에 충실했던 며느리는 그 집안에 자식의 대를 이어줄 책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도덕한 방법으로 그 일을 주선하지 아니하는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자식을 낳게 됩니다. 유다는 그 사실을 안 다음에 며느리가 자기보다 의롭다고 말하고 다시는 상관하지 않았고, 거기서 난 아들에게 장자권을 인정하고 대를 잇게 했지요. 그러므로 다말은 생명 기업을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 임무를 수행한 여자이지요. 그래서 유다 베레스의 계통으로 구주가 오게 됐습니다. 라합도 역시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라합의 남편 살몬은 여리고 정탐을 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 상천하지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한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으로 생명 기업을 잇는 일에 가담했고, 그것이 룻에게 와서 아주 기업 무를 자라는 말로 구체화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지요. 그는 기업 무를 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이 지구 기업을 무를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생명 기업을 물어주는 일을 하였고, 아담 대신 사단에게 벌을 주었으며 사단으로부터 지구를 돌려받음으로 벌금을 받아 되돌려주는 역할을 다 감당했지요.

4. 예, 그런 예언적 의미가 있었군요. 그 참 아주 묘한 복음적 의미가 그 족보에 숨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것을 찾았습니까?

답: 글썄요? 이미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나눈 성경을 주신 목적을 따라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회복시키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생명 회복의 시각으로 성경을 살피다보니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형사취수 제도가 바로 생명 기업을 물어주는 것을 가리키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사실 아까 목사님이 말한 대로 동생 된 사람의 입장에서 내키지 않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첫 아담이 죽었을 때 말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담당하기로 하셨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이미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일을 친히 담당하기로 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과 계대결혼 제도도 조금 연관이 있지요. 계대결혼해서 나온 아들은 죽은 남편의 씨가 아닙니다. 남편의 아내가 시동생에게 받아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이것 역시 여자의 씨에 대하여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은 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주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상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마리아도 동일한 의미로 족보에 등재된 것이지요.

5. 마리아가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답: 이미 짐작하셨겠지요. 생명을 이어주는 기능을 행한 사실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을 말씀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다시 이어지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한 여자입니다. 그가 남편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동일하지요. 그리고 당시 사회 풍습으로는 마리아 역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당시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다말이나 기생 라합이 어엿한 이스라엘의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지 그것도 별로 용납될만한 일이 아니지요. 룻은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여자지요. 밧세바 역시 그런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는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야의 아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낳아서 구주의 조상이 된 사람들은 다 올바르게 자기 본 남편에게서 난 자식들이 아니지요. 라합은 잘 모르겠지만요.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 기록한 정황으로 봐서 아마 라합이 살몬의 첩일 수도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성경 다른 곳에는 살몬의 아내에 대한 기록이 일절 없고 라합에 대한 다른 기록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어 기생이라는 말, “자나”는 창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몬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장자인데 창녀를 본 부인으로 맞았다고 보는 것은 좀 상식적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더구나 노스(North)같은 신학자는 여호수아 2:1에 유숙하다는 말을 동침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 말이 “샤카브”인데 성경에 여러 번 동침으로 사용되었지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속박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만.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봐서 기생 라합이 살몬의 정실 부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추리를 해 보는데,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

아요. 아무튼 이런 일은 생명 기업 무르는 것과 관련된 것을 나타내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6. 그래도 마리아를 다른 네 여자와 동일한 선상에 두는 것은 좀 거부감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답: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리아가 구주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그를 성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마리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여기지만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모라고 해서 아주 숭배의 대상을 만들었고, 원죄도 없다고 하면 8월 15일은 마리아 승천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마리아가 사람 아버지가 있어서 그 어머니와 동침하여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는 것이지요.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일 뿐입니다. 즉 너는 흙이니 라고 한 그 상태이지요. 마리아도 생명과 존재라는 성경이 이 세상 아담의 후손들을 보는 그 시각으로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요, 흙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말씀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가 되어 사람으로 탄생하셨는데, 역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의 씨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앞의 다른 여자들과 동일한 범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에 의하여 그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하였고 예수님은 다윗 왕가의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의 계통으로 법적인 증거를 확실히 하였고, 또 요셉은 마리아를 사회 풍습의 바람을 막는 울타리가 되었지요. 그래서 구주가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7.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루시퍼에게 넘어간 이 지구를 다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되찾아주신 토지 기업 무르는 일을 이루시고, 동시에 부활하셔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생명 기업을 무르는 일을 이루시고, 원수인 사단을 죽게 하심으로 친족을 위하여 원수 갚는 것도 행하시고, 사단을 죽게 함으로 형벌 집행도 하셔서 기업 무를 자, 곧 고엘이 할 일로 표상한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셨군요. 참 절묘합니다. 또 더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까?

답: 고엘, 곧 기업 무를 자는 반드시 가까운 친척이라야 합니다. 당연히 사람이라야 하지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계시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 아담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지요. 히브리서 2:11,12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12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라고 기록했습니다. 형사취수의 예언적 표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이 잃어버린 그 영생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이 확실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인성을 가지신체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직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친족, 형제로 계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8. 과연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구약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실 사건들이 다 구주의 출현과 관계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모두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하실 구속 사업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업을 배제하고는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겠습니다.

답: 당연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지요.(눅24:27)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요5:39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구주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구주를 보내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성경 연구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다 예언입니다. 심지어 국가들에 사건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건설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언에 속하는 것입니다.

9.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구주의 오실 방법과 하실 일들을 가르쳐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답답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꼭 영생을 얻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분들도 이 아름다운 내용을 잘 깨달으시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답: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에스겔 18:32에는 “나 주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는 자들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들을 살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외치시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망을 폐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딤후1:10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십니다.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겔16:6]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인간은 피투성이가 되어 세상 길가에 버려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사랑으로 거두시고 피투성이라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려고 하지 않고 죽는 상태로 죽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요.

10.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데, 어려운 신학적 이론이나 철학적 사상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 사회에 있는 사실들과 제도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예언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형사취수 제도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사회에 존재했던 제도 아닙니까?

답: 그렇지요. 또한 기업 무르는 일도 당시 사회에 있던 제도였을 가능성도 있지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명령하셨다고 해도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어렵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생명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생활현장의 여러 국면들을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서 가문을 존속시키는 그 방법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물어주는 대속의 복음을 생생하게 가르쳐주시고, 친족이 생활 터전을 잃고 종살이를 다든지 타지로 이사를 가서 성곡하지 못하고 거의 망하다시피 하여 돌아왔든지 그런 생활상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아주 인상 깊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참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깨닫기 위하여 멀리가야 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으로서는 생소한 일들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실들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시 풍속에 대한 설명도 들어야 하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생활 속에 있는 것으로 접근하면 구원의 복음은 쉽고, 예수님이 왜 구주일 수밖에 없는지도 분명히 쉽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 예 확실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기도하고 끝내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중에 영생하도록 모든 조처를 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결코 어렵지 않는 이 복음을 위 모두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